



15. 윗글과 <보기>를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을 비교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푸코에 따르면 '규범'은 사회적 행동과 사고방식을 규제하는 규칙이나 표준이다. 규범은 개인이 사회적 규범에 따라 자신의 행동과 사고방식을 형성하는 과정인 '주체화'를 통해 '자기관리'를 촉진한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건강, 교육, 직업 등을 관리하여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관리는 '생명정치'(Biopolitics)의 일환으로, 신자유주의는 생명정치를 통해 경제적 성과를 극대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성'은 통치의 방식과 기술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권력이 어떻게 사회 전반에 걸쳐 행사되는지를 설명한다.

- ① 폴라니는 '규범'이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균형을 해칠 수 있다고 보겠군.
- ② 폴라니는 '자기관리'가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묵살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사회적 연대와 보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군.
- ③ 마르크스는 '주체화'가 개인을 자본주의적 가치에 종속시키고, 노동계급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작동할 때 이는 계급 불평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겠군.
- ④ 마르크스와 폴라니 모두 '정부성'이 국가가 경제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도구라고 보는 점에서 대중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위로부터의 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폴라니, 마르크스 그리고 푸코 모두 '생명정치'를 추진하는 신자유주의가 사회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며, 국가가 신자유주의의 작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정하겠군.